

미래예측기법을 활용한 사범대학의 미래

이도영 · 이진숙 · 권다남* · 최류미* · 김대현*
(부산대학교)

The Future of College of Education By Adapting Future Research Methodology

Do-Yeong LEE · Jin-Suk LEE · Da-Nam KWON* · Ryu-Mi CHOI* · Dae-Hyun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ey factors affecting the future college of education and describe two scenarios for prospecting the future college of education. In these scenarios, two important factors are selected to influence the college of education : 'Expansion of the marketization'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As a result, two different scenarios have been identified. Scenario 1 is 'College of education realizing user centered education by development of the marketization and technology'. Scenarios 2 is 'College of education realizing welfare and the public of edaucaiton by using technology'. This study has some significance to the college of education in Korea in following aspects. 1) It applies future research methodology in method aspect 2) It arouses attention to the future college of education and reminds probabilities of change in context aspect.

Key words : Environment scanning, Futures wheel, The college of education, Scenario planning, Marketization, publicity

I. 연구의 필요성

학교를 둘러싼 사회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이 눈에 띄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의 각 분야에서 변화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이용 가능한 지식의 폭발적 증가, 글로벌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생태 문제의 심화와 같은 다양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인재가 요구될 것이며, 미래 인재 양성을 도맡고 있는 학교교육의 혁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교는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은 교사의 품성과 자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누구나 쉽게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시대의 교사들은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역량(Ban, 2008)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학습자의 요구와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여 개별화 교수방법(Chun & Kim, 2011;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 Corresponding author : 051-510-2629, dnkim@pusan.ac.kr

* Pusan National University A program for Developing Future-oriented Education Designer

Evaluation, 2012)과 함께 세계시민교육, 친환경교육, 다문화교육 등(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2)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 개발과 정서 함양을 위한 전문성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세계 주요 나라들이 교육개혁의 핵심을 교사의 질 향상에 두고 교사교육 및 교사 연수 체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특히 교원 양성 기관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질 높은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급속하고 복잡하게 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예비 교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범대학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사범대학은 이처럼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따라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체계, 교육과정, 교수진 구성, 그리고 교원 수급의 불균형과 같은 안팎의 현안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Sin & Park, 2008; Yoon, 2002; Jung, 2001; Cho, 2004; , Hwang, 1999). 이처럼 혁신적인 변화가 요청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교사 과정에서의 교수 역량 증진을 위한 사범대학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Back & Ham, 2007; Lee & Jo, 2012; Jo et al, 2014; Choi, 2012)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 지향적인 교사를 양성함에 있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범대학 개혁이 현안 문제의 해결에 매달리는 경향이 강하여 교사 교육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에 미래학이 결핍되어 있는 실정이다(Snoek et al, 2003).

사범대학의 교원양성 체제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미래 학교의 변화에 대응하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사를 길러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의 경우,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모바일 기기가 수업 장면에서 적극 활용되고(Jonathan et al), 네트워크화 된 학습을 위한 교육 시스템(K. Facer & R. sandford)의 구축과, 세계화와 지역화, 교육 공학 기기의 발달, 미래 교사 교육의 정책 및 이슈, 고등교육의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Snoek et al, 2003; Musto, 1994; Niemi, 2000)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래의 사회, 경제 및 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른 변수들을 종합하여 교원양성기관의 미래를 주제로 다룬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사회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사범대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동인을 파악한 후, 퓨처스 힐, 교차분석기법,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하여 사범대학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향후 사범대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 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사범대학의 현황과 과제

사범대학은 중·고등학교의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지칭한다. Ministry of Education (2014)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등교원양성기관은 총 107개로, 46개의 사범대학에 43,824명, 61개의 일반대학 교육과에 14,411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사범대학의 현황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우리나라 사범대학은 현재에도 수많은 중등 교사를 양성하는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안팎으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시대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과정(Yoon, 2002; Cheong, 2001; Cho, 2004; Korea Institute for Educational Policy, 2008), 이론중심적인 교직과정(Cheong, 2001; Seo, 1999), 통합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데 방해가 되는 분과 조직

<Table 1> The current status of college of education in Korea(2013 standard)

	College of Education		Division of Education	
	Number of School	National and Public	16	National
	Private	30	Private	54
Number of Student	National and Public	16,955	National	970
	Private	26,869	Private	16,441
Curriculum	Liberal Art + Major Subject + Course in Teaching (Theory of Teaching, Subject Matter Education, Teaching Practice)			

(Chung, 2014), 교과 내용학·교과 교육학·교육학 이론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의 미흡, 실습 기간의 부족, 실습 학교와 대학 간 협력 체계 미약, 교육시설의 노후화, 교과교육학 전공 교수의 부족(Hwang et al, 1999) 등이 지적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등을 통한 교사양성 등의 양성 기관의 다양화로 인한 사범대학 졸업생의 임용률 하락, 교과별·지역별·시대별 교원 수급의 불균형(Sin & Park, 2008; Yoon, 2002; Cheong, 2001; Cho, 2004; Korea Institute for Educational Policy, 2008) 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범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Kim(2003)은 교원양성·임용·현직교육 간의 연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06)에서는 중등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기준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며 중등 교원 양성기관의 특성화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교원양성을 위해 대학 구조조정적인 차원에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한 대학원 중심의 교원교육체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Ko, 2009; Kim, 2004; Kim, 2008; Park, 2002; Hwang, 1999).

하지만, 대다수의 선행 연구는 현재 사범대학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보다 과학

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바탕 위에서 사범대학의 미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경우 미래 지향적인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을 제안하는 연구(Ko et al, 2004; Hwang et al, 2009), 특정 교육대학에 다가 올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제시한 연구(Hur, 2010) 등이 있는 반면, 사범대학에서는 다가 올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그에 적합한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환경 스캐닝, 퓨처스 휠, 교차분석법, 시나리오 플래닝 등의 다양한 미래예측기법을 활용하여 미래 사범대학의 모습을 과학적인 바탕 위에서 그려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Ⅲ. 연구 절차 및 방법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의 방법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예측기법들을 연구 단계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된 연구방법은 환경스캐닝 기법, 퓨처스 휠 기법, 시나리오 플래닝이다. 환경스캐닝 기법과 퓨처스 휠 기법은 시나리오에 쓰일 핵심 동인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적합하고, 시나리오 플래닝은 사범대학의 변화된 미래를 그려보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과 가장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범대학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거시적, 미시적인 변화 동향 및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환경스캐닝 기법을 사용하였다. 미래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사범대학을 둘러싼 환경을 사회·문화(Society), 과학·기술(Technology), 경제·산업(Economy), 자원·환경(Ecology), 정치·제도(Politics)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로 인터넷 웹 사이트를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서적, 보고서, 통계자료, 선행논문 등의 문헌분석도 함께 이뤄졌다. 이 때 자료를 추출하는 기준은 향후 10-20년간의 미래사회, 고등교육 환경, 중등학교, 그리고 교육 전반과 관련되었다. 보통 모든 시나리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트렌드로는 ICT의 폭발적인 등장, 다문화주의, 지속적인 변화, 세계화, 지배적인 공용어로서의 영어, 다양한 언어 구사 능력, 환경변화(Snoek et al, 2003)이며, 본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일반적 트렌드를 따라 재검토하고, 빠른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드러난 트렌드를 파악하여 환경 스캐닝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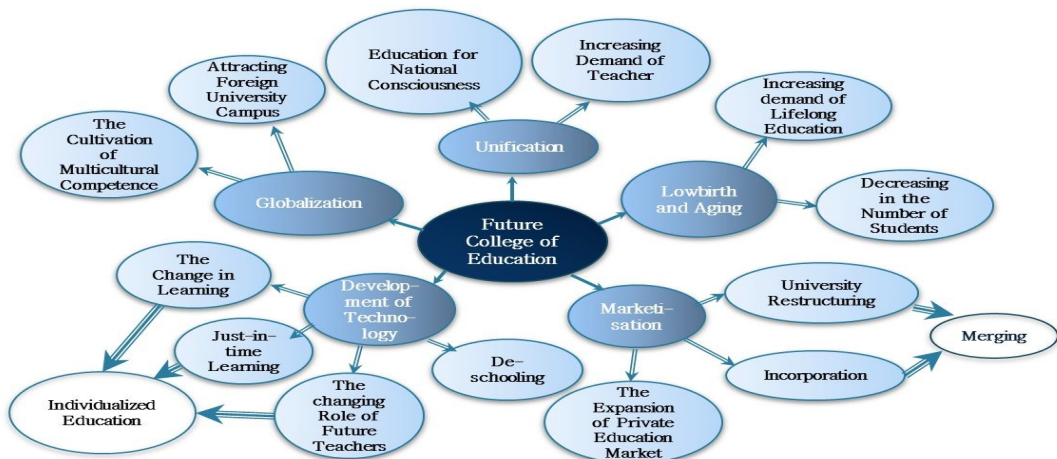
환경스캐닝을 통해 구분한 5가지 영역에 들어

갈 세부 주제들은 선행 연구들과 신문, 서적의 영역 구분을 검토하여 연구자들 간의 상호 검토와 토의 과정을 통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에 속한 세부 항목들에 대하여 영향력과 확실성을 구분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P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육학 전문가(교수) 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조언을 받음으로써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추출한 6가지의 미래 트렌드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Future Trend Extracted by Environment Scan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lling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according to the structural changes -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 Marketization - The environmental disaster by climate change - The development of brain research - Technology development such as virtual reality, robot and Ubiquitous
--

다음으로 환경스캐닝을 통해 수집한 미래 사회의 변화 요인들을 바탕으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와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퓨처스 휠(Futures Wheel)을 작성하였다. 이 기법은 여러 가



[Fig. 1] Futures wheel that surrounds the future College of Education

지 사회 트렌드들과 특정 사건들이 가져오는 2차, 3차적인 영향과 그 결과를 밝히기 위한 방법론으로(Park et al, 2007; Jang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범대학을 중심 주제로 잡고, 1차 영향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시장화, 테크놀로지 발달, 세계화, 통일을 작성하였다. 퓨처스 휠을 작성할 때는 기존의 방법을 조금 변형하여 1차, 2차, 3차로 진행될수록 화살표의 수를 늘려가면서 서로의 인과관계의 파악을 용이하도록 했으며, 이 때 환경스캐닝에서 도출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퓨처스 휠은 [Fig. 1]과 같다.

다음으로는 퓨처스 휠에서 추출된 여러 가지 동인들 중에서, 시나리오의 두 축을 담당할 가장 핵심적인 변화 동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교차 분석법(Cross Impact)을 사용하였다. 교차 분석법은 본 연구와 같이 영향력과 불확실성이 높은 변화 동인이 10개 내외이며 프로젝트기간이 촉박할 경우에 적합한 방법으로, 변화 동인들 사이의 상대적인 영향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Yoo, 2009).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를 비롯하여 사범대학 교수 5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하나의 변화 동인이 각각의 변화 동인에게 미치는 영향(영향이 크면 2, 보통이면 1, 거의 없으면 0), 그 영향이 강화이면 +, 약화이면 -로 평가하였다. 이 수치를 절대값으로 계산하여 ‘통일’과 ‘시장화’가 독립도와 의존도가 가장 높은 핵심 변화 동인으로 추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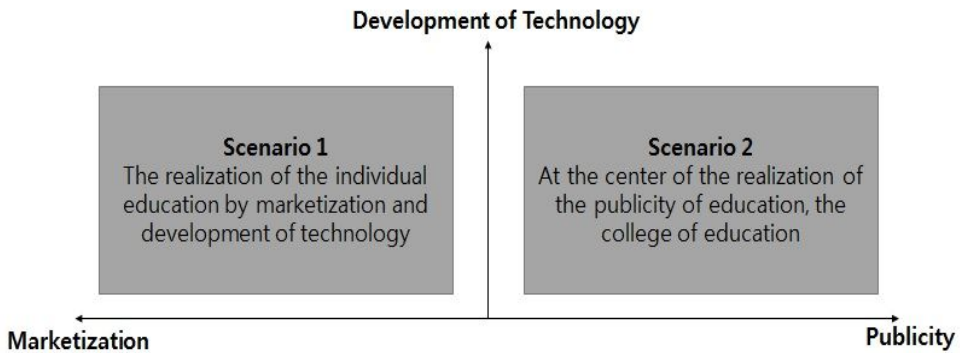
그러나 핵심 변화 동인으로서 ‘통일’은 사범대학의 미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만큼 매우 중요한 동인이나, 남북 분단의 현 상황과 북한의 교육에 관한 자료와 연구 부족으로 인해 현재 북한의 교육 체제나 교사양성기관, 교사교육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임을 볼 때 풍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기에 한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또 다른 핵심 변화 동인으로서, 불확실성은 낮지만 급격한 속도로 우리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테크놀로지

의 발달’을 시나리오의 두 번째 축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나리오(Scenario)를 작성하였다. 시나리오 플래닝이란, 미래에 나타날 중요한 몇 가지 핵심 변수들과 이들의 관계로 인한 상황 및 진행 단계들을 시계열 형식, 이야기 형식 등으로 펼쳐 보여주는 기법(Kim et al, 2009)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시나리오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내용이 그럴듯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미래를 실제적으로 만드는 흥미와 재미를 유발해야 함(Park et al, 2007)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장화’ 여부를 한 축으로 정하고, 미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다른 한 축으로 삼아 두 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환경스캐닝과 퓨처스 휠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흐름에서도 영역별로 상이한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큰 주제로 시장화와 공공성이라는 주제를 발견하였다. 반면,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 전문가 조언 등을 종합해 본 결과, 테크놀로지는 크게 발달할 것이라고 일관성 있게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시장화 된 사회에서의 사범대학, 그리고 공공성이 강조된 사회에서의 사범대학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 분면에는 ‘시장화’가 가속화 된 미래의 사범대학의 모습을, 다른 분면에는 시장화의 흐름에서 벗어나 ‘공공성’의 요구를 받는 미래의 사범대학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본 연구에서 미래 사범대학의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구성한 결과는 [Fig. 2]과 같다.

시나리오의 형식은 다양하다.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소설 형식, 신문 기사 형식, 이야기 형식, 연극이나 영화처럼 역할극의 형태도 가능하며,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형식과 문체를 선택할 수 있다(Yoo, 2009). 본 연구에서



[Fig. 2] Framework for Scenarios

는 미래의 사범대학이라는 제제가 대중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라기보다는 학문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범대학의 미래 모습에 관한 내용과 시사점을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체를 선택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사범대학의 시나리오는,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사범대학의 모습을 사범대학의 존재 여부와 규모, 학과 체제, 목표와 정체성, 교육과정 및 방법 등과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작성한 것이다. 시나리오 작성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고려한 질문 사항은 <Table 3>과 같다.

1. 시나리오1: 시장화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 사범대학

신자유주의에 의한 교육의 시장화가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가속화되고 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자율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추진되었고, 모든 대학이 무한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다른 대학과 합병이라는 방안을 선택하거나 외국 기관과 제휴하여 국제화·특성화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내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처하고 학생 유치가 대학의 존재에 중요한 요인이 됨에 따라, 사범대학들은 외국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캠퍼스를 개설하거나 외국 대학과의 공동학위

IV. 사범대학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

<Table 3> Scenario maps for future college of education

	Scenario 1	Scenario 2
Size of college	- Would it be possible to continue to exist just the way the college of education is?? - What changes would the college of education experience? - Would the size of college be larger or smaller?	
Department	- What changes of department happen in the future? - Is there a department established newly?	
Goals and Identity	- Would the goals of pre-teacher education be changed? - How about the career prospects of graduates?	
Curriculum	- What contents of education be emphasized or be weakened? - What kinds of curriculum improve competency to be pre-teacher? - What is likely to be the effect of advanced technology on curriculum?	
Methodology and types of class	- What is likely to be the effect of advanced technology on the type of class in the college of education?	

제도를 활성화하는 길을 모색하기도 하며, 대학에 도입된 기업주의 영향에 발맞춰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범대학 내 학과 및 교육과정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학령인구 감소의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급속하게 발달하는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성세대 교사들의 명예퇴직의 증가와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교원의 수요는 심각하게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비교적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교직은 임용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다. 이는 공공복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교육 부문에 있어서 교육기관의 법인화 추진, 민영화에 따른 규제 완화, 학교 내 계약직 교원 확대와 같은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심각해진 사회전반의 고용 불안과도 관련이 깊다.

더불어 사범대학의 변화에는 교육 테크놀로지 시장의 확대가 기여한 바가 크다. 이미 초·중등 교육에 깊이 침투한 시장화는 교육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결합하여 굳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개인에게 필요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이에 따라 학교가 아닌 홈스쿨링이나 소규모 대안 학교를 통한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는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이끌었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홈스쿨러를 겨냥한 다양한 교육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오랫동안 공공의 성격으로 여겨지던 교육조차도 마침내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얼마나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구매하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시대의 도래로 평생교육 전문기관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새롭게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사범대학은 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던 역할에서 벗어나 사교육기관이나 교육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시장화라는 사회 물결이 공립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안정된 직장으로 보장되던

교직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며, 교사의 역량 강화와 책무성이 중시되면서 교원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 교수 능력의 향상이 절실해짐에 따라 재교육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장으로서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범대학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사범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학습자 중심으로의 변화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하여 수업의 형태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미 u-러닝의 활성화로 인하여 다양한 나라의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수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사범대학은 가상공간 및 증강 현실의 활용, 가상 체험학습, 가상 실습 등의 교수 방법을 도입하여 좀 더 현실에 적합한 교사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테크놀로지 발달은 막대한 자본의 유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교육의 시장화는 어쩌면 필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교육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장화의 물결에 편승한 대학의 영향 속에서 경쟁력을 제고 하고,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학생들을 위한 개별화 교육의 자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소비자인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학 내 학생관리시스템이 더욱 활발히 운영될 것이며, 경쟁력 있는 전문가의 배출을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실적 및 학습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지원해주는 교수-학습 지원 센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시나리오2: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 복지 및 공공성 실현의 중심에 선 사범대학

국가 전반에 걸쳐 밀려들어 온 시장화의 물결에 교육도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하지만 교육의 시장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보다는 계층 갈등과 분열, 균형적 성장의 실패와 같은 부정적 결과가 더 많이 도출됨에 따라 국가는 다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무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형평성 있게 교육 혜택을 배분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교육 전반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교육 영역에 종사하는 교육 전문가들에도 일정 자격을 요구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사범대학은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전반에 관하여 연구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졌다. 유아, 초·중등 등으로 각기 흩어져 있던 교사양성기관은 교육 과정 및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사범대학은 보다 중앙집권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외형의 통합·개편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사범대학 내부의 교육과정 및 학과의 변화이다. 기존의 유아, 초·중등 학제 및 기본 학과는 유지하고 있지만, 근래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교육공학, 산업교육, 직업교육 등과 관련된 학과를 확충하고 있다. 교사양성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청소년 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 지역사회 평생교육, 교육 콘텐츠 개발자 등과 같은 다방면의 교육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학과들도 신설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한 교육 방법 및 활용의 혁신적 변화에 대처할 교원 및 전문가 양성의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학령인구의 감소와는 반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에 관한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국가에서는 복지의 일환으로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서비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

도 관련이 크다.

또한, 사범대학은 교육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사회 통합, 인성, 나눔과 같은 가치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다. 이에 따라 교육 내용 및 목적에 있어서도 공동체, 협력 등의 가치를 보다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과학 기술의 발전 이면에 소외되는 가치들에 대한 사회적 반성의 결과로서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교육이 되었다. 인문학, 협력 학습, 세계 시민, 다문화 교육, 생태 교육 등의 가치를 알고 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사범대학은 이와 관련된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u-러닝이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고정된 강의실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맞춤형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용화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 및 교수·학습은 일상화된 지 오래이며, 개인 클라우드를 통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나가며, 그 공유의 폭은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화 된 사회 및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개발해나가도록 독려되고, 각 개인이 연결된 네트워크 망은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그동안 지나친 경쟁을 야기했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여전히 높은 개별 교육에의 요구로 인해 홈스쿨링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홈스쿨링은 학교가 보여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u-러닝의 발달로 집에서도 충분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홈스쿨링에 대한 지원의 방향으로 적극적 대처를 하고 있다. 각 지역에는 홈스쿨링을 위한 지원센터가 마련되고 개별화 교육을 지원할 교사를 배치하여 관리·감독하게 하는 한편, 홈스쿨러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외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교육 공공화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소외 계층에 대하여 원격 교육을 통해 학습을 지원을 하는 영역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통합된 사범대학은 기술 발달로 변화된 교육 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보다 복합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사범대학생은 이처럼 까다로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에 대한 수요는 높아진다. 왜냐하면 국가는 사범대학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모든 교육 종사자에게 교사자격증의 의무화가 확대될 것임에 따라 사범대학은 이제 교육관련 직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이자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사회적 보상과 가치 역시 상승하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환경스캐닝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 변화 동인을 추출하였으며, 퓨처스 휠을 통하여 이들 동인이 미래 사범대학에 미치는 영향력과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Cross Impact 분석법을 통해 가장 핵심적인 변화 동인으로 ‘시장화’를 도출하였다. 시장화의 확대 여부를 하나의 축으로 삼고, 또 다른 핵심 변화 동인으로 불확실성은 낮지만 급격한 속도로 우리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두 번째 축으로 설정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한 분면에는 ‘시장화’가 가속화 된 사회에서의 미래 사범대학의 모습을 그렸으며, 다른 분면에는 시장화의 흐름에서 벗어나 ‘공공성’의 요구가 확대된 사회에서의 미래 사범대학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사범대학은 시장화의 영향으로 인해 교육에 경쟁원리가 도입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교육의 시장화는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공적 기관이나 공적 및 사적 기관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Park, 2001; Jung, 2008).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범대학도 시장화의 논리에 따라 통폐합 또는 입학정원 축소라는 구조조정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통폐합의 과정을 통해 살아남은 사범대학도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교육을 지향하고 평생교육 및 고령 인구를 위한 교육 전문가 양성, 개별화 교육, 인성 및 공동체 교육, 교육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등과 같은 새로운 이름의 경쟁력 있는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향으로 사범대학의 성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둘째, 교육에서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교육 복지 및 형평성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교원의 질 관리와 다양한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미래 사범대학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사양성 기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미래 교육 요구에 부합하는 학과를 확대 개편할 것으로 예상한다(Kang & Kwak, 1998). 또한, 교원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사자격증의 범위를 확대하고, 홈스쿨링의 증가 추세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감독을 아끼지 않는 정책으로 기존의 학교교육 뿐 아니라 사교육 전반에 걸쳐서도 공공성의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 공공성의 대상인 모든 학생들을 공적 지식 생산 함양교육을 위한 교사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직과목을 강화(Sung, 2007)할 것이다.

셋째, 시장화와 공공성의 간화와 함께 시대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테크놀로지의 발달도 한국의 교육 전반을 비롯하여 사범대학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u-러닝으로 대표되는 미래 학습 시대(Kim et al, 2007)에서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배

움의 공간 형성(Chun & Kim, 2011), 각종 대안학교 및 홈스쿨링과 같은 다양한 학교의 운영, 학제의 개방화(Song, 2000) 등을 가능케 할 것이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법의 고도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은 학습 환경과 스마트 러닝, 개별화 교육 실현 등을 가능하게 될 것이다(Han et al, 2014; Park, 2012; Korea Institute for Educational Policy, 2008; So & Kim, 2012). 따라서 미래의 사범대학은 기존의 교수 능력에 더하여 다양한 최첨단의 교육 공학 기기를 적절히 교육에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주게 될 것이다(Ban, 2008).

이상으로 미래의 사범대학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사범대학은 학교를 둘러싼 미래 사회의 변화 요인들을 고려하여 글로벌 지식기반경제사회의 인재상을 길러낼 수 있는 교사 양성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전과는 달리 전 세계적 인터넷 망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어디서든 얻을 수 있으므로 학교의 독점적인 지위는 변화하고 있으며,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미래의 교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개별화 학습 관리 및 컨설팅 능력을 비롯하여 인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복합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이 있는 사범대학은 예비 교사의 통합적인 역량을 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경직된 교과 조직체계,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 현장과의 연계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 세계적 추세인 시장화의 물결이 고등 교육 현장까지 밀어닥치고 있는 현실에서 사범대학은 시장화에 따른 사범대학의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에 대비해야 한다. 시장화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축소하고, 대학의 자발성을 촉진하며(Ryu, 2004), 성과나 실적을 중심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효율적 학교경영을 위하여 학교평가는 책무성 확보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Won, 2014)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범대학은 교원 양성 기관이라는 오랜 전통에서 미래 지향적인 교육 연구 및 교원 양성 기관으로 보다 적극적인 위치에 설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범대학은 미래 인재에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량들을 예측하고, 교과외의 벽을 허물어 미래 교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갈으로써 시장화의 흐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교육이 전 연령대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역할이 기대된다. 이 때 사범대학은 교원 양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교육, 성인 교육, 노인 교육 등 각 연령대에 맞는 교육전문가, 홈스쿨링 지원을 위한 개별학습 관리 및 컨설팅 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Yoon, 2001)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학교는 평생교육의 기초로서 여겨지고, 기존의 학교라는 제한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이 가정과 지역사회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Park et al, 2012).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범대학은 교원을 양성하여 공급한다는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교육의 각 분야와 영역에 요구되는 교육 역량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범대학은 국가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책무성 아래에서 교육 전문가 양성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교육과정 및 조직 체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사범대학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교육을 실현해나가야 한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미래 환경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므로, 현재의 경직되고 관습화된 모습을 고수하기 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적절히 읽어 내고 이를 반영하여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교육 경험, 실적 및 학습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지원해주는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사범대학의 수업 방식과 평가 체제를 미래 교육에 맞추어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미래 교육의 성공 여부는 교사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함에도 여전히 사범대학은 이론 위주의 수업, 강의식 수업, 그리고 줄 세우기의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습 속에서 예비 교사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량을 갖추기 어려우며, 기술 혁신으로 빠르게 변화할 미래 교실에 적합하지 않은 교사가 될 것이다. 미래 대학교육의 패러다임도 학습자 중심체제와 교수역량 개발을 중시하는 추세(Park & Sim, 2011)이며, 미래 교실의 모습으로 예상되는 전자 교과서, e-러닝, 증강 현실 활용 교육, 가상현장 학습 등의 다양한 기술이 사범대학 내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예비 교원들이 유비쿼터스 교실 환경을 경험하고 상용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에 초점을 둔 인적, 물적 지원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범대학 뿐만 아니라, 정부, 지역 사회, 나아가 사회 전체가 미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인프라 마련에 힘써야 한다. 미래 인재의 양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공동체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여 교육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보(Nam, 2008)해야 하기 때문이다. OECD나 UNESCO와 같은 국제적인 조직들은 일찍이 미래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사, 교사 교육자, 교육 정책가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점도 맥을 같이 한다(Snoek et al, 2003). 이를 위해서는 미래 인재 및 교육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기관에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현재의 우리나라의 테크놀

로지 및 인터넷의 발달과 같은 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논의와 각종 인프라의 토대가 실현되었을 때 바람직한 미래의 교사가 양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범대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미래예측기법을 사용하였다는 점과 시나리오를 통하여 미래에 가능한 이미지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나리오는 독자들로 하여금 멀리 않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트렌드나 발달에 대한 민감성을 고무시켜주고,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켜 미래에 취할 수 있는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Snoek et al, 2003)는 장점을 지니는데, 본 연구에서도 미래 사회에 따른 사범대학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변화의 가능성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한편, 미래 예측을 통해 논의되는 트렌드가 미래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방법적 한계를 지닌다는 점과, 대상이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만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연구 대상을 미래의 교원양성기관으로 확대하고 방법론적인 보완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Ban, S. A.(2008). *The study of construction plan for constructive leaning environment-oriented ubiquitous learning space by subjects.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Back, S. G. & Ham, E. H.(2007). The Effect of Teaching Practicum on Educational Value in Secondary School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0(4), 1~29.
- Cheong, J. G.(2001). Teacher Education in Korea and Its Alternative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18(3), 89~111.
- Cho, K. W.(2004). A Critical Examination of secondary teacher Education for Secondary School

-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5(1), 1~19.
- Cho, M. H. · Lee, H. Y. & Lee, H. W.(2014). Teacher Competencies of the Students in the College of Education.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0(3), 239~263.
- Choi, Y. J.(2012). A Study on Educational Experiences of Pre-service Teachers.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8(3), 1~29.
- Chun, J. Y. & Kim, S. G.(2011). Importance of the Science of Erudition In the Forms of Future University Classes. *The Journal of SEC*, 3(1), 61~71.
- Chung, Y. G.(2014). Specialization of teachers' training education and College of libe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9(1), 25~41.
- Facer, K., & Sandford, R.(2010). The next 25 years?: future scenarios and future directions for education and technology.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26(1), 74~93.
- Han, S. J. · Kim, H. S. & Heo, G.(2014). A Meta-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Smart-Learning. *Jour. Fish. Mar. Sci. Edu*, 26(1), 148~155.
- Hur, S.(2010). Searching for the Way of Change and Development of GINUE. *Searching for the Way of Change and Development of GINUE*, 30(2), 1-18.
- Hwang, G. H.(1999). Models for Graduate School Level Initial Teacher Training in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0, 33~49.
- Hwang, Y. H. · Kwon, D. W. · Park, S. C. · Yoo, G. C. · Lee, B. W. · Lee, W. H. · Lee, H. G. · Jung, G. Y. & Cho, G. J.(2009). A Curriculum Proposal for the Future of the Universities of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6(3), 339~363.
- Jang, J. H. · Han, S. G. · Lee, J. Y. & Seo, Y. S. (2011). Study on 2030 *Future Career Life*. Seoul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Jung, H.(2008). The critical investigation on premises of a market-based education policy.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3(0), 151~172.
- Kang, W. G. & Kwak, Y. W.(1998). A Study of Teacher Education System Toward the 21st Century.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15(2), 24~55.
- Ko, J.(2009). Review on the Suggestion of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6(2), 345~364.
- Ko, K. S. · Choi, Y. H. · Park, I. G. · Seok, M. J. · Noh, S. G. · Han, J. S. · Lee, D. S. & Jo, D. S. (2004). The Investigation of the Future-Oriented Cuniculum Model for the University of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1(2), 187~207.
-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Kim, Y. C. · Lee, I. J. · Hong, H. J. · Ban, S. J. & Choi, D. M.(2006). *Change Prospect and School System of Education System*. Seoul :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2). *Design of the competencies-based national curriculum for the future society*. Seoul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RC. 2012-4)
- Korea Institute for Educational Policy(2008). *A Study on the Plan for Improving the Training program of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Seoul : Korea Institute for Educational Policy.
- Kim, B. C.(2000). The Shift on Teacher Education Paradigm.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17(3), 113~141.
- Kim, B. C.(2003). Discussion on the crisis of the college of education.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21(3), 29~56.
- Kim, H. G.(2009). *Supporting Successful Public Policy Making : Future Strategy Research Oriented Methodology version 1.0*.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Kim, H. S.(2008). The Pros and Con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Model for Teacher Education. *The Research of Education*, 30, 69~88.
- Kim, J. B.(2004). Strategies of Teachers&' training System for Better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1(3), 29~47.
- Kim, J. Y. · Kwon, N. W. & Han, H. J.(2007). English Digital Textbook Contents Types and Integrated Contents Organizational Model Development for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3(4), 115~134.
- Lee, H. W. & Jo, M. H.(2012). Teacher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of the Students in the College of Education by

- Grade Level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9(4), 521~540.
- Ministry of Education (2014). 2013 *Current state of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 Musto, J. N.(1994). *High-Tech Future: A Scenario for Higher Education*. Technology 1.
- Nam, W. (2008). A Study on the Necessity of Consilience-Education and -Teacher.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4(4), 1~16.
- Niemi, H.(2000). *Teacher education in Finland: current trends and future scenarios*. In *Teacher Education Policies in the European Union*.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f Teacher Education policies in the European Union and Quality of Lifelong Learning, Loule, 22, 843~855.
- Park, C. Un. · Kim, H. Y. & Cha, C. P.(2012). Discussion of schooling related 5-School-Day Week. *Jour. Fish. Mar. Sci. Edu*, 24(3), 79~94.
- Park, J. W.(2001). Education marketing and Public. *Educational Criticism*, 6, 32~42.
- Park, S. M.(2012). Development of Learning Strategy e-Learning Contents based on the Storytelling. *Jour. Fish. Mar. Sci. Edu*, 24(2), 272~285.
- Park, S. M. & Sim, M. J.(2011). Analysis of Teaching Behavior Based on the Learner-Centered Teaching Competency. *Jour. Fish. Mar. Sci. Edu*, 23(3), 374~387.
- Park, S. W.(2002). Alternative paradigms and structures of secondary teacher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19(3), 31~54.
- Park, Y. S. · Jerome Glenn, & Ted Gordon(2007). *Future research methodology*. Seoul: Kyobo.
- Rossing, J. P. · Miller, W. M. · Cecil, A. K. & Stamper, S. E.(2012). iLearning: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Student Perceptions on Learning with Mobile Tablets. *Journal of the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12(2), 1~26.
- Ryu, B. L.(2004). The Future Forecast of School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1(1), 21~45.
- Seo, J. H.(1999). Educational Reform and Subject of Development on the College of Education. *Research of Education*, 33, 169~187.
- Sin, S. M. & Park, H. G.(2008). *The Diagnose and Assignment of Secondary Education Teacher Training From a Autonomy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Scholarship Conference, 2008(1), 102~131.
- Snoek, M. · Baldwin, G. · Cautreels, P. · Enemaerke, T. · Halstead, V. · Hilton, G. ... & Svensson, L.(2003). Scenarios for the future of teacher education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6(1), 21~36.
- So, W. G. & Kim, H. K.(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Motivational Characteristics of m-Learning on the Learning Outcome. *Jour. Fish. Mar. Sci. Edu*, 24(3), 368~377.
- Song, G. Y.(2000). 21st School Education System and a Teacher's Certification.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17(1), 93-110
- Sung, B. C.(2007).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Principles on Educational Publicnes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0(3), 229~249.
- Trilling, Bernie, Fadel, Charles, &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2012). *21st century skills*. Seoul : Hakjisa.
- Tschong, Y. K.(2014). Spezialisierung der Lehrerbildung und das studium generale.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9(1), 25~41.
- Yoo, J. S.(2009). *Scenario Planning*. Seoul : Jihyung.
- Yoon, J. I.(2001). *Strategy Exploration Study for Reinforcement of Public Education*. Seoul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Yoon, J. I.(2002).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eacher Preparation for Qualitative Improvement of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Scholarship Conference.-(36), 7~28.
- Won, H. H.(2014). A Research on Improving School Evaluation System for Quality School Education. *Fish. Mar. Sci. Edu*, 26(1), 223~235.

-
- Received : 06 April, 2015
 - Revised : 30 April, 2015
 - Accepted : 11 May, 2015